

# 노바티스, 백혈병 치료제 시판 승인

<태그시나> 세계 최초로 스위스 시판 ... 2008년 국내판매 예정

스위스계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(Novartis)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<글리벡>(성분 이매티닙)에 이어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한 <태시그나>(닐로티닙)가 세계 최초로 스위스에서 시판승인을 받았다.

노바티스의 한국지사인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내성이나 약제를 견뎌내지 못하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소수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치료에 태시그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위스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았다고 7월26일 발표했다.

4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상 임상시험 결과, 태시그나는 글리벡에 내성을 보이는 만성기 환자의 42%, 가속기 환자의 31%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(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발견되는 변이 염색체로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Bcr-Abl 단백질을 만들어 냄)가 감소되거나 없어졌고 만성기 환자의 71%, 가속기 환자의 44%에서 백혈구 수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태시그나는 글리벡과 마찬가지로 Bcr-Abl 단백질의 특정 부분에 결합해 암세포가 증식, 분화하고 생존하는데 필요한 신호전달을 차단함으로써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노바티스는 태시그나가 2007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현재 노바티스는 태시그나에 대한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에 따라 2006년 6월부터 국내 7개 병원에서 글리벡 내성 국내 환자들에게 태시그나를 무료로 복용할 수 있도록 약과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.

또 우리나라와 일본에 태시그나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, 국내에서는 2008년에 발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7/26>